

# 「備預百要方」에 나타난 天人觀과 醫學觀 연구

A Study on the Heaven-Human Relationship and  
the Medical Philosophy of *Biyebakyobang*

김진희(Kim, Jin-Hee)\*

안상우(Ahn, Sang-Woo)\*\*

## ◁ 목 차 ▷

- |                         |                 |
|-------------------------|-----------------|
| 1. 서론                   | 3. 「비에백요방」의 의학관 |
| 2. 「비에백요방」의 천인관         | 3.1 향약정신의 발로    |
| 2.1 天地隨人觀의 개념           | 3.2 運氣論의 새로운 활용 |
| 2.2 天地隨人觀과 天人感應說의<br>관계 | 4. 결론<br><참고문헌> |

## < 초 록 >

「비에백요방」은 「의방유취」의 인용제서 중 하나로 고려 의서인 「어의촬요」 다음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중국 의서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에 조선의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 편찬에 있어서 주요 채록대상이 된 고려 의서임이 밝혀졌다.

본 논문은 「의방유취」의 권3에 수록되어 있는 총론을 바탕으로 이 책의 천인관과 의학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책에서 나타난 천인관은 사람의 마음을 천지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특징으로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는 것을 중시하는 기존의 의학관과 대비된다. 사람으로 인해 자연이 변화한다는 부분에서 천인감응설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많으며 의학이론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한단계 발전시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단미 위주의 처방을 수록하였고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방의 사용과 의토성을 강조한 향약의학의 원형으로 생각된다. 또 현재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우리 의서 중에서 최초로 운기이론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황제내경」의 운기칠편과 구별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要語: 비에백요방, 의방유취, 향약, 운기론, 고려, 한의학.

\*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연구원(biran@kiom.re.kr)

\*\* 한국한의학연구원 전통의학정보연구본부장(answer@kiom.re.kr)(교신저자)

접수일: 2009년 9월 5일 최초심사일: 2009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09년 9월 16일

<ABSTRACT>

*Biyebakyobang*(備預百要方), one of the references of *Euibanglyuchwi* (醫方類聚), is listed after *Eouichwaryo*(御醫撮要), a medical text of the Goryeo period. The origin of this book has long been mistaken for China. However, it was recently discovered that this book was a medical text from the Goryeo period largely cited for compiling *Hyangyakjipseongbang*(鄉藥集成方) and *EuiBangLyuChi* in the Joseon Period.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Heaven-Human relationship and medical philosophy of *Biyebakyobang*, based on the general outline in chapter 3 of *EuiBangLyuChi*. Its theory on the Heaven-Human relationship is unique in that human mind is considered to take precedence of heaven and earth. While this theory is similar to the Heaven-Human Compliance theory in that it acknowledges many changes human can cause in nature, it also displays many unique features in specific contents. Moreover, a systematic connection with medical theories demonstrates some upgrade in the theory.

This book contains mostly singular prescriptions and argues for the use of herbs easily available. We believe this could be the prototype of the idea of “Hyang-yak” which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singular prescriptions and local ingredients. In addition, this book is the first to mention the theory of five phases and six climates among the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currently available. It is also worth noticing that this theory, however, is different from that of *Huangdi Neijing*(黃帝內經).

Key words: *Biyebakyobang*, *Euibanglyuchi*, Hyang-yak(Native herbs), Goryeo, The five phases and six climates, Oriental medicine

## 1. 서론

「備預百要方」은 「醫方類聚」의 인용제서 중 하나로 고려 의서인 「御醫撮要」 다음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역대사서나 서지목록에 전혀 언급이 없었음으로 인해 오랫동안 중국 의서로 간주되어 왔다. 김두중은 「한국의학사」에서 「비예백요방」을 송대의 것으로 인정하여 「향약구급방」을 비롯한 고려 의서 대부분이 “약제를 사용함에 있어 독자적 경험방법을 응용한 몇 가지 예를 제외하면 그 술법이 唐宋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고, 최진환·이영택도 “「향약구급방」, 「삼화자향약방」, 「향약집성방」 등 「비예백요방」을 주요 의거서로 삼은 대부분의 향약류의 의서들이 송의 의서를 거의 전채하다시피 중용했다.”고 하였다.<sup>1)</sup> 이에 신영일도 그의 연구<sup>2)</sup>에서 “(「향약구급방」은) 「비예백요방」을 전사하다시피 중용하고 있으니 본방서는 「비예백요방」을 중요 의거서로 삼고 다른 방서를 참조 침삭하여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방문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중국의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처방의 내용은 몇몇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당시 의학 수준은 중국의학 이론을 답습하고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그동안 「비예백요방」이 중국 의서라는 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온 것이 결국 「비예백요방」을 전본으로 삼은 「향약구급방」 및 이후의 향약 의서들을 중국 의학을 답습하는 정도로 평가 절하하는 사태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다 안의 연구<sup>3)</sup>에 와서야 비로소 이 책이 조선의 鄉藥集成方 과 醫方類聚 편찬에 있어서 주요 채록대상이 된 순수 고려 의서임이 밝혀졌다. 같은 연구에 의하면 「비예백요방」의 저작시기는 1230-1240년경으로 추정되며, 「의방유취」에 남아있는 유문만 살폈을 때 총론 부분의 논설이 4편, 처방은 1200여 가지를 상회하여 양적으로 방대한 의서였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또, 「향약구급방」이나 「삼화자향약방」 등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를 풍미한 향약 의서들이 이 책을

1) 안상우, “고려 의서 「비예백요방」의 고증,” 「서지학연구」 22집(2001. 12) 3-21.

2) 신영일, “「향약구급방」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4, 77-78.

3) 안상우, 위의 논문.

모태로 하고 있고 중복된 부분이 많다고 하니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보았을 때 「비예백요방」은 여말선초의 우리나라 향약 의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서적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안의 연구 이후에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서 「비예백요방」의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되어 알려진 바가 없다. 논자는 「비예백요방」의 복원작업을 시작하면서 총론<sup>4)</sup>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하였다. “天地隨人而變”, “是以人猶先作, 天乃後變.”이 그것인데 이는 자연의 사계절 변화에 순응하는 것을 양생의 기본으로 하는 자연중심의 중국 의학과 대조되며 우리나라의 의학서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중시하더라도 천지자연이 인간을 따라 변한다는 내용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내용이다. 또한 용약(用藥)의 원칙에 있어서도 다른 의서에서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내용을 볼 수 있고,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우리 의서 중에서 최초로 운기이론을 활용한 것 등 흥미로운 부분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논자는 「비예백요방」의 가치와 독창적인 내용들에 주목하여 「의방유취」 권3에 수록된 총론을 바탕으로 「비예백요방」의 천인관과 의학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 2. 「비예백요방」의 천인관

### 2.1 天地隨人觀의 개념

「醫方類聚」에 기록되어있는 「비예백요방」의 내용은 크게 총론편과 처방편으로 나눌 수 있다. 총론은 「의방유취」 권3에 수록되어 있는데 ‘비예백요방’이란 서명 아래 별다른 소제목 없이 1편, 그리고 병의 원인(病源), 약의 복용법과 30가지의 금기(服藥法并通忌三十), 약을 만드는 법(修合法)이란 제목으로 각 1편씩

---

4) 「의방유취」 권3 총론 비예백요방.

총 4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총론의 첫 번째 논설에는 천지자연과 인간의 관계, 五常과 五星 및 運氣와 질병의 관계 등을 포함한 의학관이 개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 논설의 마지막 부분에는 “급한 때에는 눈앞에 물건을 취하여 1~2가지 약물로써 7~8가지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백요(百要)라고 이름하여 아래에 분류한다.”<sup>5)</sup>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추측하건데 이 논설은 비예백요방 의 서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논자는 앞으로 제목없이 서술되어 있는 이 논설을 서문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서문에서 천인관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첫단락으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이 단락의 핵심은 “天地隨人而變”이라 하여 천지자연이 사람을 따라 변한다는 것으로 논자는 편의상 이를 天地隨人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늘과 땅은 허공에서 생겨났고 사람과 만물은 천지 사이에서 생겨나서 오행(五行)을 부여받았는데 쇠하고 왕성함이 때가 있다. 서로 극하면 위태로워지고 서로 생(生)하면 왕성해지며 균형을 이루면 조화롭고 한쪽이 승하면 해가 된다. 천지는 사람을 따라 변하기 때문에 심기(心氣)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모든 기가 다 따라가게 된다. 그러므로 오규(五竅)의 작용이 바르고 바르지 않음에 따라 조금씩 반응하여 슬픔·기쁨·근심·즐거움으로 나타나고 질병이 신체에서 생겨난다. 오성(五星)의 변화가 기뻐하고 성내면 크게 반응하여 바람과 우레, 홍수와 가뭄이 나타나고 안위가 국가에까지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하늘은 뒤에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급의사는 천하의 무리를 치료하고 중급의사는 국가의 무리를 치료하고 하급의사는 사람과 동물의 무리를 치료한다.<sup>6)</sup>

이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의학서적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천인관과는 다른 독특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사람,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마음(心氣)이

5) 의방유취 권3 총론 3 비예백요방 중 서문에 “是故倉皇之除，住取眼前之物，以一二之甲，可防七八之害，名之曰百要，以類於左。”  
6) 의방유취 권3 총론 3 비예백요방 중 서문에 “夫天地生於大空，人物生於天地之間，承稟五行，衰旺有時，相剋而胎，相生而成，平則爲和，勝則爲害，天地隨人而變，故心氣一偏，則諸氣皆從。是以五竅之用，邪正則小應，悲喜憂歡形之，平病生於身體；五星之變，喜怒則大應，風雷水旱兆之，安危至於國家。是以人猶先作，天乃後變。故上醫治天下之師，中醫治國家之師，下醫治人物之師。”

천지자연보다 우선하며 사람이 천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사람을 따른다는 것이다. 의학서적에서 보이는 천인관은 하늘의 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인간이 하늘의 변화에 순응해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비예백요방」의 이러한 내용은 독창적이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인 「황제내경」에서는 하늘<sup>7)</sup>과 인간을 상응하는 관계로 보았다. 이 상응관계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구조 및 기능 등이 天地의 모습과 상응한다는 것이다. “天圓地方, 人頭圓足方以應之<sup>8)</sup>”, “天有日月, 人有兩目, 地有九州, 人有九竅, 天有風雨, 人有喜怒, 天有雷電, 人有音聲, 天有四時, 人有四肢, 天有五音, 人有五臟 …<sup>9)</sup>”와 같은 구절들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건강상태가 천지의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윤의 연구<sup>10)</sup>에 따르면, “「황제내경」에서는 사람이 자연계의 운동변화의 가운데에 生하고 또 天의 五氣와 地의 五味로부터 養育生存되니 이로 인하여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整體로써 자연계의 운동변화가 필연적으로 사람의 功能活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이에, 기후의 변화가 정상적일 때는 인체가 능히 적응할 수 있지만 불급이나 태과에 이르면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질병발생의 양상도 계절이나 시간,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즉, 천지의 기가 조화로우면 사람을 기르고 기가 이그러지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順天之時”를 강조하였다.

---

7) 윤창렬은 “醫學上에 나타난 天人相應”(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한의학논문집, Vol.5, No.2.(1997. 2), 113.)에서 “天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天者巔也’라 하여 인간의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天文과 氣象을 관측하는데 필요한 日月星辰을 말하고, 天은 또한 ‘天者道也’라 하여 규율과 법칙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陰陽을 말한다. 이상의 두가지 의미를 종합하면 天은 자연규율 혹은 자연법칙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때에 따라서 天과 地를 함께 하여 자연계를 대표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논자는 위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이 논문에서의 天地의 의미도 위의 天의 의미에 준한다.

8) 「黃帝內經靈樞」 邪客篇 第七十一.

9) 「黃帝內經靈樞」 邪客篇 第七十一.

10) 정윤철·윤창렬, 위의 논문, 6-7.

이것은 天으로 대표되는 자연이 질병발생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인간은 이런 자연의 변화<sup>11)</sup>를 미리 살펴서 적응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는 아직 기후나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인상응의 원칙에서 天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황제내경」의 천인관은 중국의학사에 뿌리깊게 자리잡아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는 한편, 風·寒·暑·濕·燥·火 등의 外邪를 막거나 치료하는 것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千金方」에서는 장중경의 말을 인용하여 “모든 병을 고치려면 반드시 먼저 탕약으로 오장육부의 사기를 씻어내고 여러 경맥을 잘 통하게 하여야 한다.”<sup>12)</sup>라고 하였고, 「聖惠方」에서는 “사람은 五行과 四時의 기후 속에서 살고 병은 더위(暑), 습기(濕), 바람(風), 찬기운(寒)에서 생긴다.<sup>13)</sup>”고 하였다. 宋代에 들어서서 변증이론이 체계화되어 병의 원인으로 七情을 포함한 內因도 함께 중시하게 되었으나, 여기서는 七情을 복잡다양한 병의 원인들 중 하나로 보는 것과는 달리 「비예백요방」에서는 心氣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모든 병의 근원으로 설명하고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더불어 心氣一偏한 결과가 질병으로 그치지 않고 자연의 변화와 국가의 안위에 까지 영향을 준다는 내용에서 인간의 心氣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저자의 독창적인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 2.2 天地隨人觀과 天人感應說의 관계

의학에서의 대표적인 천인관은 天人相應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인간의 구조 및 기능 등이 天地의 모습과

- 
- 11) 자연계의 변화는 계절, 시간, 지리환경의 변화와 차이를 포함하는데 특히 기후의 변화를 위주로 한다.  
12) 「醫方類聚」卷1 總論1 千金方 論診候: “張仲景曰, 欲療諸病, 當先以湯, 蕩滌五臟六腑, 開通諸脈.”  
13) 「醫方類聚」卷1 總論1 聖惠方 論用藥: “人居五行四氣, 病主(生)暑濕風寒.”

답았다는 의미와 인간의 건강상태가 天地의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의미가 그것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天人合一觀이 의학적으로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천일합일관이 유교에 흡수되면서 발전한 것이 바로 天人感應思想이다. 천인감응사상이란 하늘과 인간이 서로의 변화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하늘과 인간은 같은 종류로써, 氣의 작용에 의해서 서로 같이 움직인다는 우주론이 널리 퍼져 있었다. 여기에 董仲舒가 인격신적인 天의 존재를 부각시켜 祥瑞, 災異說을 핵심으로 하는 天人感應說을 완성하였다.<sup>14)</sup> 이때부터 천인감응사상은 하늘과 인간이 동등하게 서로 교감한다는 내용보다는 인간, 특히 군주의 행위에 따라 하늘이 상(祥瑞) 혹은 벌(災異)을 주므로 德治를 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주로 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인감응설의 수용과 이를 통한 자연관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고, 이로 인해 다양한 재이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sup>15)</sup> 고려시대에는 재이가 천인감응설과 관련해 더욱 엄밀하게 체계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희덕의 연구에서 “고려왕조의 시작과 더불어 당시의 자연현상과 정치적 상황을 관련지어 관찰하였던 기록이 「高麗史」나 「高麗史節要」에 의해 전승되고 있고, 특히 「고려사」의 五行志나 天文志 등은 地變과 天災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동시에 당시의 자연관과 정치현상에 대한 일정한 관념을 표현하여 주고 있다.”<sup>16)</sup>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 「고려사·열전」의 權敬中편에서는 천인감응과 관련하여 권경중<sup>17)</sup>의 자세한 사론을 발견할 수 있고, 이외에도 이승인, 강희백, 이침, 오사충, 김자수 등의

14) 김동민, “동중서 춘추학의 천인감응론에 대한 고찰,” 『동양철학연구』 Vol.36 (2004. 1). 322, 329-330. 참고.

15) 이희덕, 「고려유교정치사상의 연구」 (서울: 일조각, 1984), 10-38. 참고.

16) 이희덕, 위의 논문, 40.

17) 權敬中: 생물 미상의 고려 후기의 문신. 문과에 급제. 박사가 되었다. 일찍이 신선의 벽곡술을 배웠으므로 이규보가 시를 지어 나무랐다. 고종 때 상서예부시랑지제고(고)가 되고, 명종실록을 편찬할 때 연도를 분담하여 집필하였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열전에서 천인감응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고려시대에 천인감응설이 널리 퍼져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천인감응설은 재이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군주가 덕치를 하지 않아 하늘이 내리는 벌이므로, 이를 경고삼아 덕을 베풀어야 다시 재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혹 잘못된 정치를 계속할 경우 더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람에게 의해 자연과 국가에 변화가 생긴다는 내용은 비예백요방」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천지는 사람을 따라 변하기 때문에 심기(心氣)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모든 기(氣)가 다 따라가게 된다. 그러므로 오규(五竅)의 작용이 바르고 바르지 않음에 따라 조금씩 반응하여 슬픔·기쁨·근심·즐거움으로 나타나고 질병이 신체에서 생겨난다. 오성의 변화가 기뻐하고 성내면 크게 반응하여 바람과 우레, 홍수와 가뭄이 나타나고 안위가 국가에 까지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하늘은 뒤에 변화하는 것이다.<sup>18)</sup>

위의 내용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따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지가 변하여 재해가 일어나서 안위가 국가에 까지 미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사람에게 의해 재해가 일어나고 국가의 안위까지 위협한다는 내용은 천인감응설 외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내용으로 이 부분에서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 먼저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천인감응설은 정치사상으로 주로 군주, 넓게는 정치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천지수인관은 질병과 관계하여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또, 하늘에 대한 관점도 다른데, 천인감응설에서의 하늘은 인격을 가지고 사람의 행위에 따라 상벌을 내리는 상위 존재이다. 사람은 천재지변을 하늘의 경고로 여겨 덕치를 해야 더 큰 변을 막을 수 있다. 물론 여기서의 ‘사람’은 흔히 군주를 가리킨다. 반면에 천지수인관의 중심은 사람의 마음에 있고, 하늘의

18) 「의방유취」 권3 총론 3 비예백요방 중 서문에 “天地隨人而變，故心氣一偏，則諸氣皆從。是以五竅之用，邪正則小應，悲喜憂歡形之，平病生於身體；五星之變，喜怒則大應，風雷水旱兆之，安危至於國家。”

입지는 비교적 약하다. 사람의 마음에 반응하여 변화하되 인격적인 측면은 발견할 수 없다. 여기서의 하늘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데 역할이 클 따름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하늘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한편, 천인감응설과 유사한 부분이 한 곳이 더 있다. 이는五常과五星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고려시대의 천인감응설이 잘 드러난 「고려사·열전」의 권경중 편서 특별히 오상과 오성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자.

천문지를 살펴보면 ‘인(仁)이 이지러지고 행동거지(貌)에 허물이 있으며 춘령을 거스르고 목(木)의 기운을 해치면 별(罰)이 세성에 나타나고, 의(義)가 이지러지고 말(言)에 허물이 있으며 추령을 거스르고 금(金)의 기운을 해치면 별이 태백성에 나타나고, 예(禮)가 이지러지고 살피는 것(視)에 허물이 있으며 하령을 거스르고 화(火)의 기운을 해치면 별이 형혹성에 나타나고, 지(智)가 이지러지고 듣는 것(聽)에 허물이 있으며 동령을 거스르고 수(水)의 기운을 해치면 별이 진성(辰星)에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인·의·예·지는 신(信)으로써 주(主)로 삼고 모·언·시·청은 심(心)을 정(正)으로 삼기 때문에 사성(목성·화성·금성·수성)이 모두 잘못되면 전성(填星)이 그것을 위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성의 감응이 대개 이와 같습니다.<sup>19)</sup>

위의 내용에서 권경중은 인·의·예·지·신의 오상이 변질되면 해당되는 오성에 별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원리로는 오행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즉 오행에서 목에 해당되는 인이 변질되면 자연계의 목의 기운을 해치게 되고 그 여파가 역시 목에 해당되는 세성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아래의 비예백요방」의 내용과 비교해보자.

의(義)가 변하여 인(仁)을 상하게 하면 하늘의 태백(太白)이 그 세성(歲星)을 범하는 변동이 생긴다. 이때에 잘 생기는 증상은 눈이 붉어지고 저리고 아프며 흰 예막과 창이 생겨서 혹 가렵고 혹 찌르듯 하며 노여움이 그치지 않는

19) 「고려사」 권101 열전14 권경중: “按志曰, 仁虧貌失, 則罰見歲星, 義虧言失, 則罰見太白, 禮虧視失, 則罰見熒惑, 智虧聽失, 則罰見辰星, 仁義禮, 以信爲主, 貌言視聽, 以心爲主, 故四星皆失鎮, 乃爲之動, 五星之應. 大抵如此.”(번역: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국역 고려사」 부산: 민족문화, 2006, 165)

것이다. 경진·경술·경자, 정축·정미·정묘·정유년에 많이 발생하며 나머지 해에 발생하는 것은 간에 받은 기가 부족한 것이므로 먼저 그 폐를 치료하고 뒤에 간을 보해준다.

지(智)가 변하여 체(體)를 상하게 하면 하늘의 진성(辰星)이 형혹성(熒惑星)을 범하는 변동이 생긴다. 이때에 잘 생기는 증상은 가슴에 열이 나서 몹시 답답하며 손발이 차가워지고 입술이 터지고 입이 마르며 아랫배가 뭉쳐서 덩어리가 뻣히고 뜨거운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으며 찬 음식을 먹으면 가슴이 치밀어 어지럽고 메스꺼우며 잘 졸게 되고 잘 잊어서 착오가 많이 생긴다. 어깨, 등, 척추, 팔다리가 옥신거리고 몸에 열이 심하게 발생하며 상한, 학질, 소증, 소갈이 생긴다. 병진·병술·병자·병오, 계묘·계유년에 많이 발생하며 나머지 해에 발생하는 것은 심장의 기운이 부족해서인데 먼저 심장을 치료하고 후에 심장을 보한다.

예(禮)가 변하여 의(義)를 상하게 하면 하늘의 형혹(熒惑)이 태백(太白)을 범하는 변동이 생긴다. 이때에 잘 생기는 증상은 폐가 벽차고 가슴이 그득하며 어깨와 옆구리가 묵직하고 아프며 머리와 목덜미가 당기며 숨이 몹시 차서 오직 내쉬기만 하고 들이쉬는 수가 없고 온 몸에 부스럼이 생기며 목구멍이 붓고 치아가 뻗뻗하며 코피가 나고 눈이 어두워진다. 무자·무오·무인·무신, 을사·을해년에 많이 발생하며 나머지 해에 발생하는 것은 폐의 기운이 부족해서이므로 심장을 먼저 치료하고 후에 폐를 보해준다.

신(信)이 변하여 지(智)를 상하게 하면 하늘의 진성(鎮星)이 진성(辰星)을 범하는 변동이 생긴다. 이때에 잘 생기는 증상은 기혈이 뭉쳐서 모든 마디가 저리고 아프며 귀가 멍하고 코가 막힌다. 허리가 아프고 등이 뻗뻗해지며 창만 하여 기가 올라오고 사지가 무거우며 방광이 조이고 오줌이 방울져 나오며 다리와 무릎이 싸늘해진다. 갑진·갑술·갑인·갑신·갑자·갑오, 신축·신미년에 많이 발생하며 나머지 해에 발생하는 것은 신장의 기운이 부족해서이므로 비를 먼저 치료하고 후에 위를 보해준다.

인(仁)이 변하여 신(信)을 상하게 하여 하늘의 세성(歲星)이 진성(鎮星)을 범하는 변동이 생긴다. 이때에 잘 생기는 증상은 머리와 얼굴이 풍으로 가렵고 온몸이 가려우며 사지가 나른하고 무거우며 눅기를 좋아한다. 임진·임술, 기사·기해년에 많이 발생한다. 나머지 해에 발생하는 것은 비의 기운이 부족해서이므로 먼저 간을 치료하고 후에 비를 보해준다.<sup>20)</sup>

20) 의방유취 권3 총론 3 비예백요방 중 서문에 “義變傷仁, 天之太白, 犯歲星之變同. 目赤疼痛, 白翳生瘡, 或痒或刺, 瞋怒不已, 多作庚辰·戊·子, 丁丑·未·卯·酉之歲. 餘歲發者, 肝之受氣不足者也. 先治其肺, 後補於肝. 智變傷體, 天之辰星, 犯熒惑星之變同. 心熱悶劣, 手足逆冷, 唇裂口燥, 少腹結瘕, 熱食不下, 冷食逆心, 眩暈喜眠, 多忘錯誤, 肩背脊四肢煩疼, 體蒸壯熱, 傷寒疾瘧, 消中消渴. 多作丙辰·戊·子·午, 癸卯·酉之歲. 餘歲發者, 心氣不足者也. 先治其腎, 後補於心. 禮變傷義, 天之熒惑, 犯太白之變同. 肺脹胸滿, 肩脊重痛, 頭項拘急, 喘息麤大, 唯出不入, 偏體生瘡, 喉腫牙強, 鼻血目暗, 多作戊子·午·寅·申, 乙巳·亥之歲. 餘歲發者, 肺之受氣不足者也. 先治其心, 後補於肺. 信變傷智, 天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예백요방에서는 “의(義)가 변하여 인(仁)을 상하게 하면 하늘의 태백(太白)이 그 세성(歲星)을 범하는 변동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상과 오성을 오행의 원리에 의거에 연결시켰다는 점은 천인감응설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비예백요방」에서는 貌·言·視·聽·思의 五事나 계절에 따른 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단순히 같은 오행속성을 가진 류의 변화만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상극관계에 있는 다른 오행속성도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같은 木의 속성을 가진 인이 상하는 것은 상극관계인 金의 속성을 가진 의가 변하여 그렇게 된 것이고, 세성도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金의 속성인 태백이 세성을 범하여 변동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는 단순히 같은 속성을 연결시킨 것보다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또한 여기에 다 잘 생기는 질병의 증상을 나열하고, 이런 증상이 유행하는 해를 운기를 활용하여 제시함으로써 오상, 오성 과 운기 그리고 질병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의학이론으로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들로부터 천지수인관과 천인감응설이 상통하는 점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많은데 특히 비예백요방에서는 오상, 오행, 운기 및 의학이론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한단계 발전시킨 이론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비예백요방」의 의학관

#### 3.1 향약정신의 발로

「비예백요방」에서의 처방의 특징은 구하기 쉬운 약재를 사용하여 간이성을

---

之鎮星，犯辰星之變同。氣血擁滯，百節疼痛，耳聾鼻塞，腰痛背強，脹滿上氣，四肢沈重，胞急淋瀝，脚膝逆冷，多作甲辰·戌·寅·申·子·午，辛丑·未之歲。餘歲發者，腎之受氣不足者也。先治其脾，後補於胃。仁變傷信，天之歲星，犯鎮星之變同。頭面風痒，遍體癢痒，四體懶重，嗜臥。多作壬辰·戌，己巳·亥之歲。餘歲發者，脾之受氣不足者也。先治於肝，後補於脾。”

추구하고 單味위주의 처방을 다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원칙은 서문에서 분명히 밝혀 놓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쓰는 약물들은 천지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곧, 산, 언덕, 밭과 들판, 성, 담, 도로, 정원, 섬돌에서 나는 것과 당사의 문, 벽, 옷, 이부자리, 깨진 그릇, 썩은 물건, 오래동안 영킨 덩어리와 오래 쌓인 먼지 등 없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어떤 병이 잠시 일어나면 여러 약이 동시에 앞에 나타나니 이러한 즉, 단지 깊은 물을 건너가고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이 조심하여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가리지 말고 쓰면 비록 먼지나 흙이라도 한가지 효력은 있을 것이다. 이에 만에 한두가지라도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모아 보았다.<sup>21)</sup>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귀하거나 비싼 약재를 쓰는 것보다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가리지 말고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가리지 말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비싼 약재, 좋은 약재를 따지지 말라는 것이지 각각의 효능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다. 또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모았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처방편에는 여러 약재를 복합처방한 경우도 있지만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1~3가지 이내로 구성된 처방이 많다. 그 형태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 諸風門 / 諸風 >

四肢風, 手足伸不收, 屈不伸方, 白楊皮浸酒漬之, 并治脚氣.

又中風, 半身不遂, 手足不仁方, 松葉生搗, 塩相和, 盛袋蒸之, 熱熨不至傷肌, 冷易, 日五六度.

轉筋風方, 古蘇以醋浸甌中, 蒸乘熱, 裹病處, 冷更易.<sup>22)</sup>

虛肥積年, 氣上如水病, 面腫, 脚不腫方, 檣葉【八兩】以水一斗, 煮取六升, 去滓, 內米煮粥食之.<sup>23)</sup>

21) 「의방유취」 권3 총론 3 비예백요방 중 서문에 “至於所用有物, 無非天地間用, 則山丘田野·城牆道路·庭園措砌·堂舍戶壁·衣裳褥席·敗器朽物·遠結凝塊·久堆塵垢無所不有, 故一病才起, 百藥俱前, 如此則但在臨深履薄之慎, 不作輕重取捨之用, 則雖塵土, 豈無一驗矣. 令撮萬中之一二單用者.”

22) 「의방유취」 권24 제풍문12 비예백요방 제풍.

23) 「의방유취」 권24 제풍식치 비예백요방 제풍.

\* 【 】안의 내용은 주석이다.

< 口舌門 / 口唇諸病方 >

口瘡有膿方, 桔梗爲末, 和水蜜煎服. 又口瘡方, 桑白汁塗之.<sup>24)</sup>

< 小兒門 / 丹毒 >

小兒赤遊丹上下, 伏龍肝末付. 又海藻搗付.<sup>25)</sup>

< 小兒門 / 小兒雜方 >

小兒淋疾方, 橡葉三片煎服.<sup>26)</sup>

위의 처방들은 제풍문, 구설문, 소아문에서 발췌하였는데, 제풍문의 첫 줄을 보면 풍증으로 팔다리를 펴기만 하고 구부리지 못하거나, 구부리기만 하고 펴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백양나무껍질을 술에 담근 뒤 손발을 담근다고 하였다. 또 다음 줄에는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술잎을 찢어서 소금을 섞은 뒤 찜질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남은 제풍문 처방도 식초나 저엽을 쓰고 있는데 구하기 쉬운 것들을 단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설문에서 길경과 꿀, 상백죽 등을 쓰는 것이나 소아의 적유단에 복롱간, 해조를 쓰는 처방, 소아의 임질에 상엽을 쓰는 처방 등도 모두 구하기 쉬운 1~3가지 이내의 약재로 구성되어 간이성과 치료 효과를 동시에 노린 것이다.

이러한 처방구성은 여말선초의 향약의서들과 유사성을 가지는데 비예백요방과 가까운 시기에 간행되었고, 향약의서의 시초로 알려져 있는 「향약구급방」의 조문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24) 「의방유취」 권77 구설문2 비예백요방 구순제병방.

25) 「의방유취」 권249 소아문11 단독 비예백요방.

26) 「의방유취」 권250 소아문12 제립 비예백요방 소아잡방.

<향약구급방>

食毒一<sup>27)</sup>

【凡解毒藥，皆令停冷，然後飲，若湯熱則不能解，雖危急必須停冷 此所知也。】

凡理食毒，煮黑豆令熟，飲其汁。

又煮藍【青台】汁，飲亦解。

濃煮薺苳【獐矣扣次】汁飲亦效

諸食中毒者，黃龍湯犀角煮汁，無不理也。飲馬尿亦良。

犀角雖非我有，公卿大夫，奉使遠方，如有倉卒，剗帶犀而煮服，即活，千金之軀，豈而帶犀論也。

食菜中毒，煮葛根汁，飲之。亦不及甘草煮汁。

肉毒二<sup>28)</sup>

食膾不消，搗生薑取汁，小與水和服，又取葱·蒜【大蒜】·薑·生醬，作齏【音齊膾汁】，飲一小盞許，便消。

食狗肉中毒，杏仁二兩，去皮尖雙人，細研，以熱湯三坩，攪和，冷分三服。

百藥毒四<sup>29)</sup>

砒霜毒，冷水和礫豆粉服，無粉細末礫豆服之，勝於粉也。

巴豆中毒，菖蒲汁，生薑汁【小豆葉】，解之 大豆煮汁，並解。

烏頭·天雄·附子毒，大豆煮汁，解。

大戟【楊等漆根】毒，菖蒲【消衣羅】汁，解。

위의 「향약구급방」의 내용을 살펴보면, 食毒一의 두 번째 줄에서 식독을 푸는데 검정콩을 삶은 물을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아래로는 남즙, 제니 등을 쓰고 있고, 肉毒二에서는 회를 먹고 체한 경우에 생강즙을 쓰거나 개고기를 먹고 중독된 경우 행인으로 푸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百藥毒四에서도 비상독에 녹두, 과두 중독에 창포즙 등 처방이 간단하고 쉬운 구성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증상에 무엇을 쓰라는 식의 이런 간단명료한 구성은 의학을 잘 모르는 이도 쉽게 따를 수 있으며 제시된 약재들이 주위에서 구하기 쉽고 가짓수도 적어서 매우 실용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향약의서들의 공통된

27) 신영일, 위의 논문, 7.

28) 신영일, 위의 논문, 11.

29) 신영일, 위의 논문, 17.

특징이기도 한데, 「비예백요방」의 처방편에서 그 전신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향약구급방」이 「비예백요방 과 처방형태만 비슷한 것은 아니다. 실제 내용에 서도 유사한 것이 많아 신영일은 “( 향약구급방」은) 「비예백요방 을 인용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처방 가운데 여러 방서에서 보이거나 용량이나 복용방법이 조금 다른 것은 「비예백요방」을 따르고 있으며, 병명에 대한 해설이나 분류도 「비예백요방」을 전사하다시피 중용하고 있으니...<sup>30)</sup>”라고 할 정도였다. 이로부터 「비예백요방」이 「향약구급방」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고, 이어 여말선초 향약의서들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비예백요방 에서 약재를 구할 때 간이성을 중시하고 동시에 단미 약재의 효과를 잘 살린 것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단방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의토성을 중시하는 향약정신으로 발전하였다. 「향약제생집성방 의 서문에는 중국 의학과 관련하여 “당나라 이래로는 그 방문이 시대마다 증가되어, 방문이 많아질수록 의술은 더욱 소루해졌다.<sup>31)</sup>”라고 평하고는 이어 “대개 옛적에 용한 의원은 한가지 약재로 한가지 병을 고쳤었다. 그런데 후세 의원들은 여러 가지 약재를 써서 공효를 노렸기 때문에 당나라의 명의 허윤중은 ‘사냥하는데 토끼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온 들판에 다 널리 그물을 치는 격이다.’하고 조롱하였으니 참으로 비유를 잘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약재를 합쳐서 한 가지 병을 고치는 것이 한 가지 약재를 알맞게 쓰는 것만 못한데, 다만 병을 제대로 알고 약을 제대로 쓰기가 어려운 것이다.<sup>32)</sup>”라고 하였다. 이는 방문이 많아지고 처방이 많아지는 것은 병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병을 정확히 파악하면 한 가지 약재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의원이 지향해야할 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향약집성방」 발문에는 “처방에 君臣佐使가 있는지 오래되었지만, 속방이나 단미 약재가 효과가 더 빠른

30) 신영일, 위의 논문, 346.

31) 「陽村先生文集」 第17卷 序類 鄉藥濟生集成方序: “自唐以來其方世增. 方愈多而術益疎.”(원문 및 번역: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32) 陽村先生文集 第17卷 序類 鄉藥濟生集成方序: “蓋古之上醫, 唯一物以攻一疾, 後世之醫, 多其物以幸有功, 故唐之名醫許胤宗有獵不知兔, 廣絡原野之譏, 眞善喻也, 然則合衆藥而治一病, 不若用一物之爲切中也, 但難精於知病而用藥耳.”(원문 및 번역: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경우가 있다. 요컨대 약물이란 것은 그 병에 합당하면 될 뿐이기 때문이다.<sup>33)</sup>”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단방 활용의 효율성을 뒷받침해 준다.

「향약제생집성방」의 서문에 “우리나라는 중국과 떨어져, 이 땅에서 나지 않는 약재를 누구나 구하여 쓰기 어려운 것이 실로 걱정이었다. 그러나 나라 풍속이 가끔 한가지 약재를 가지고 한 가지 병을 치료하되 그 효험이 매우 신통했었다.<sup>34)</sup>”라고 하였고, 향약집성방의 서문에서는 “민간에 사는 노인이 능히 한 개의 약초로 한 질병을 치료하면서도 그 효과가 매우 신묘한 것이 어찌 땅의 성질과 잘 맞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약과 병이 잘 맞아 떨어져 그러한 것이다.<sup>35)</sup>”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우리나라에 이미 한 가지 약재로써 병을 치료하는 전통이 있었으며 효과 또한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서적 중에서는 바로 「비예백요방」이 이런 전통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서적인 것이다.

「향약제생집성방」의 서문에 “오방(五方)이 모두 성질이 다르고, 천리(千里)면 풍속이 같지 않아 평상시의 좋아하는 음식의 시고 짠 것과 차고 더운 것이 각각 다른 것이니 병에 대한 약도 마땅히 방문을 달리해야 하며 구차하게 중국과 같이 할 것이 없는 것이다.<sup>36)</sup>”라고 하였고, 「향약집성방」의 서문에서는 “이름난 의사가 병을 진찰하는 것과 약을 쓰는 것이 모두 지역의 풍토에 따랐으니 애초에 한가지 방법에 구애된 것은 아니었다. 무릇 백리마다 풍속이 같지 않고 천리마다 풍습이 같지 않으며 초목의 생겨남도 각각 마땅한 바가 있어서, 사람이 먹고 마시

33) 「鄉藥集成方」跋: “藥有君臣佐使古也, 而亦有以俗方單劑取效尤速. 要之藥, 當其病而已.”(원문 및 번역: 강연석, “「鄉藥集成方」의 鄉藥醫學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66, 68.)

34) 陽村先生文集 第17卷 序類 鄉藥濟生集成方序: “吾東方遠中國, 藥物之不產茲土者, 人固患得之之難也, 而國俗往往能以一草而療一病, 其效甚驗.”(원문 및 번역: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35) 향약집성방 원서 “唯民間故老, 能以一草療一病, 其效甚神者, 豈非宜土之性, 藥與病值而然也.”(원문 및 번역: 강연석, “「鄉藥集成方」의 鄉藥醫學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63, 65).

36) 陽村先生文集 第17卷 序類 鄉藥濟生集成方序: “且五方皆有性, 千里不同風, 平居之時, 食飲嗜慾酸醎寒暖之異宜, 則對病之藥, 亦應異劑, 不必苟同於中國也.”(원문 및 번역: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고 좋아하고자 하는 바 또한 익숙한 것이 있다. 이에 옛 성인들이 온갖 약초의 맛을 보아서 사방의 성질에 따라 치료하신 것이다.<sup>37)</sup>”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의술은 지역의 성질에 맞추어 달리 해야 하며 따라서 중국과 우리나라도 약을 쓰는 것이 달라야한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또, “더구나 먼 지역의 물건을 구하려다가 구하기도 전에 병만 이미 깊어지거나, 혹은 많은 값을 주고 구하더라도 묵어서 썩고 쭈미 파먹어 약기운이 다 나가 버린다면, 토산 약재가 기운이 완전하여 좋은 것만 같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약을 써서 병을 고친다면 반드시 힘이 덜 들고 효험은 빠를 것이다.<sup>38)</sup>”라고 하여 우리 땅에서 난 약재를 쓰는 것이 훨씬 약의 품질과 효과 및 효율성에 있어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다.

위의 내용들은 單味약재를 사용하는 전통의 우수성과 宜土性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예백요방」에서 단미 위주의 처방을 수록한 것과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쓸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과 매우 부합된다. 따라서 논자는 「비예백요방」은 「향약구급방」을 비롯한 여말선초 향약의서들의 전신이자 견인차 역할을 한 서적이라 생각한다. 고려시대에는 잦은 전쟁으로 향약의 재배나 채취가 발달하기 어려웠다. 그런 시기에 「비예백요방」이 나오면서 향약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고 「향약구급방」, 「삼화자향약방」, 「향약고방」, 「향약간이방」 등 많은 향약의서가 간행되게 된 것이다. 향약의서들의 간행과 더불어 향약의 개발과 채취가 발달하면서 조선시대에 「향약제생집성방」, 「향약채취월령」, 「향약집성방」으로 집대성되었고, 이것이 향약의서들의 서문·발문에 강한 자부심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37) 향약집성방 원서 “各醫之診病用藥, 皆隨氣施巧, 初非拘以一法, 蓋百里不同俗, 千里不同風, 草木之生, 各有所宜, 人之食飲, 嗜欲亦有所習. 此古昔聖人, 嘗百草之味, 順四方之性而治之者也.” (원문 및 번역 : 강연석, “『鄉藥集成方』의 鄉藥醫學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63, 65.)

38) 陽村先生文集 第17卷 序類 鄉藥濟生集成方序: “况遠土之物, 求之未得而病已深, 或用價而得之, 陳腐蠹敗, 其氣已泄, 不若土物氣完而可貴也, 故用鄉藥而治病, 必力省而效速矣.” (원문 및 번역: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 3.2 運氣論의 새로운 활용

運氣란 五運六氣의 약칭이다. 運氣란 氣가 운행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 五運은 木·火·土·金·水라는 五行의 운행이라 할 수 있고, 六氣는 구체적으로 風·寒·暑·濕·燥·火를 의미한다. 五運과 六氣는 天氣와 地氣로써 자연계의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運氣論은 장기간의 관찰과 통찰을 바탕으로 10天干의 陰·陽干을 오행에 배합하고 12地支의 陰·陽支를 육기에 배합하여 그 규칙을 파악해냄으로써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질병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sup>39)</sup>

五運六氣學說의 기원은 「黃帝內經」의 運氣七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제내경」의 운기철편은 唐代 王冰이 補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운기학설의 정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한다. 운기학설은 宋代에 특히 성행하였는데, 송의 元符 2년(1099)에 劉溫舒가 「素門立式運氣論奧」를 저술하여 조정에 상정되었고, 이후 운기학설은 太醫局에서 의사를 뽑는 시험과목의 하나가 되어 더욱 성행하였다고 한다.<sup>40)</sup>

고려는 宋과 빈번하게 교류하였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운기학설이 처음 도입된 시기를 고려시대로 추측해 왔었다. 그러나 고려시대 때 간행된 의서들이 거의 전해오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으며 유일하게 전해오는 「鄉藥救急方」에는 운기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sup>41)</sup> 그런데 이제 「비예백요방」이 고려의서로 밝혀지고, 그 총론에서 운기이론이 등장함에 따라 고려시대에 이미 운기이론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비예백요방」이 중국의 운기이론을 그대로 도입한 것 같지는 않다. 황제내경」이나 「素門立式運氣論奧」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비예백요방」에 수록된 운기이론부터 살펴보자. 서문에서는 먼저 오행이

39) 김은하·권영규, 「오운육기학 해설」(서울: 법인문화사, 1996), 8-9. 참고.

40) 劉溫舒 저, 윤창렬·박상영 엮음, 「(懸吐註解)素門立式運氣論奧」(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16.

41) 劉溫舒 저, 윤창렬·박상영 엮음, 위의 책, 12, 참고.

론을 중심으로 특정 증상이 다발하는 해를 수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의(義)가 변하여 인(仁)을 상하게 하면 하늘의 태백(太白)이 그 세성(歲星)을 범하는 변동이 생긴다. 이때에 잘 생기는 증상은 눈이 붉어지고 저리고 아프며 흰 예막과 창이 생겨서 혹 가렵고 혹 찌르듯 하며 노여움이 그치지 않는 것이다. 경진·경술·경자, 정축·정미·정묘·정유년에 많이 발생하며 나머지 해에 발생하는 것은 간이 받은 기가 부족한 것이므로 먼저 그 폐를 치료하고 뒤에 간을 보해준다.<sup>42)</sup>

의가 인을 상하게 하는 것과 태백이 세성을 범하는 것은 모두 金克木의 현상이다. 목의 속성을 지닌 장(臟)은 간인데, 주로 간계에 속하는 눈과 관련된 증상들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怒 역시 木氣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행의 원리로 일관되게 서술되어 있다. 다발하는 해로는 경진·경술·경자년과 정축·정미·정묘·정유년을 들었는데 경년은 金運이 태과하는 해로 금극목에 의해 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정년은 木運이 불급하는 해로 간의 기운이 약해서 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病源편에서는 오장병을 중심으로 발생시기와 예후에 대해서 수록하였다.

간병은 경정년에 발생하는데 가을에 아프고 해질 무렵에 심해진다. 심병은 병계년에 발생하는데 겨울에 아프고 잘 무렵에 심해진다. 비병은 임기년에 발생하는데 봄에 아프고 아침에 심하다. 폐병은 술을년에 발생하는데 여름에 아프고 오전(9시~11시)에 심하다. 신병은 갑신년에 발생하는데 늦여름에 아프며 닭이 울 때·아침밥 먹을 때·해가 기울 때·황혼이 질 때에 심해진다.<sup>43)</sup>

경정년과 간의 관계는 앞에서 설명하였으니 생략하겠다. 心의 경우를 살펴보자

42) 의방유취 권3 총론 3 비예백요방 중 서문에 “義變傷仁, 天之太白, 犯歲星之變同. 目赤疼痛, 白翳生瘡, 或痒或刺, 瞋怒不已, 多作庚辰·戊·子, 丁丑·未·卯·酉之歲. 餘歲發者, 肝之受氣不足者也. 先治其肺, 後補於肝.” 앞에서 전문을 실었기 때문에 총 다섯 개의 단락 중 첫 단락만 실었다.  
43) 의방유취 권3 총론 3 비예백요방 중 病源에 “肝病發於庚丁年, 痛於秋, 甚於晡. 心病發於丙癸之年, 痛於冬, 甚於人定. 脾病發於壬己之年, 痛於春, 甚於平旦. 肺病發於戊乙之年, 痛於夏, 甚於禺中. 腎病發於甲辛之年, 痛於季夏, 甚於雞鳴·食時·日昃·黃昏.”

면, 심은 火의 속성을 가지는데 병년은 水運이 태과하는 해로 水克火하므로 심을 상하게 할 수 있고, 계년은 火運이 불급하는 해이므로 심의 기운이 약해져서 병이 들 수 있다. 겨울은 水에 해당하고, 잘 무렵은 밤 10시를 말하는 것인데 밤 10시는 亥時로 역시 水에 속하니 水克火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다. 나머지의 경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같은 병원편에서 또 五味와 관련된 부분도 발견할 수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맛은 비를 상하게 하며 봄을 조심하고 또 임년을 조심한다. 쓴 맛은 폐를 상하게 하며 여름을 조심하고 또 무년을 조심한다. 단맛은 신을 상하게 하며 늦여름을 조심하고 갑년을 조심한다. 매운 맛은 간을 상하게 하니 가을을 조심하고 또 경년을 조심한다. 짠맛은 심을 상하게 하며 겨울을 조심하고 병년을 조심한다. 단맛은 봄에 좋고 임년에 좋으며, 쓴맛은 겨울에 좋고 병년에 좋다. 신맛은 가을에 좋고 경년에 좋다. 짠맛은 늦여름에 좋고 갑년에 좋다. 매운 맛은 여름에 좋고 무년에 좋다. 년(年)은 1주년이고 시(時)는 1주시인데 쇠하고 폐한 것을 길러야 한다.<sup>44)</sup>

신맛 즉 酸味는 목의 맛을 가지고 있어, 토의 속성인 비를 상하게 할 수 있다. 봄과 임년 역시 목의 속성이다. 다른 내용도 같은 원리이다. 단맛 즉 甘味는 봄과 임년에 좋다고 하였는데, 감미는 토의 맛으로 土生金하기 때문에 금을 도와줌으로써 목의 기운이 지나치지 않도록 제어해 줄 수 있다. 나머지 내용도 같은 원리를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가 「비예백요방」에서 볼 수 있는 운기이론의 전부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황제내경」의 운기칠편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병원편의 내용은 단순한 오행이론을 적용하여 의학이론 상 기본적인 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 하더라도, 서문의 내용은 자못 특이하다. 비교를 위하여 「비예백요방」의 서문에 나오는 증상과 다발하는 시기의 표를 만들어 보았다(표 1 참조).

44) 의방유취 권3 총론 3 비예백요방 중 病源에 “酸味傷脾, 忌春, 又忌壬年. 苦味傷肺, 忌夏, 又忌戊年. 甘味傷腎, 忌季夏, 又忌甲年. 辛味傷肝, 忌秋, 又忌庚年. 鹹味傷心, 忌冬, 又忌丙年. 甘宜春, 又宜壬年, 苦宜冬, 又宜丙年, 酸宜秋, 又宜庚年, 鹹宜季夏, 又宜甲年, 辛宜夏, 又宜戊年. 年則周年, 時則周時, 以養衰廢.”

<표 1> 오장병이 다발하는 시기와 병증<sup>45)</sup>

五臟病	다발시기	증상
肝病	경진·경술·경자년 정축·정미·정묘·정유년	目赤疼痛, 白翳生瘡, 或痒或刺, 瞋怒不已
心病	병진·병술·병자·병오년 계묘·계유년	心熱悶劣, 手足逆冷, 脣裂口燥, 少腹結臑, 熱食不下, 冷食逆心, 眩暈喜眠, 多忘錯誤, 肩背脊四肢煩疼, 體悉壯熱, 傷寒疾瘧, 消中消渴.
肺病	무자·무오·무인·무신년 을사·을해년	肺脹胸滿, 肩脊重痛, 頭項拘急, 喘息轟大, 唯出不入, 徧體生瘡, 喉腫牙強, 鼻血目暗
脾病	갑진·갑술·갑인·갑신· 갑자·갑오년 신축·신미년	氣血擁滯, 百節疼痛, 耳聾鼻塞, 腰痛背強, 脹滿上氣, 四肢沈重, 胞急淋瀝, 脚膝逆冷
腎病	임진·임술년 기사·기해년	頭面風痒, 徧體癢痒, 四體懶重, 嗜臥.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황제내경에서 비예백요방과 일치하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간병의 경우 경진·경술·경자년 즉, 금운이 태과하는 해와 정축·정미·정묘·정유년 즉 목운이 불급하는 해에 “目赤疼痛, 白翳生瘡, 或痒或刺, 瞋怒不已”의 증상이 생긴다고 하였다(표 1 참조). 한편, 「황제내경」의 氣交變大論에서는 주로 歲運이 태과 또는 불급한 해의 질병을 따로 언급하고 있는데 우선 금운이 태과하는 해에 대해서는 “兩肋下少腹痛, 目赤痛, 眚瘍, 耳無所聞, 體重, 煩悶, 胸痛引背, 兩脇滿且痛引少腹, 喘欬逆氣, 肩背痛, 尻陰·股·膝·髀·臑·髻·足皆病, 暴痛脇不可以反側, 欬逆甚而血溢”의 증상이 생기기 쉽다고 하였다(표 2 참조). 여기서는 간이 손상받아 생기는 병증 외에도 喘欬逆氣, 欬逆甚而血溢와 같은 폐병 증상도 보이는데, 이는 금운이 태과하면 같은 속성인 폐를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목운이 불급하는 해에 대해서는 “中淸, 肘脇痛, 少腹痛, 腸鳴漉泄, 寒熱, 瘡瘍, 癰腫, 癰疽 欬, 飢.”의 증상이 생기기 쉽다고 하였다(표 3 참조). 이는 한눈에 간병으로 보이지 않는데, 中淸, 肘脇痛, 少腹痛, 腸鳴漉泄의 증상이 생기기 쉬운 것은 간목이 불급하여 금기가 지나치면 목의 자인 화기가 미약하여 비토를 따뜻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寒熱,

45) 「의방유취」 권3 총론 3 비예백요방 서문.

瘡瘍, 癩疹, 癰疽 欬, 飢의 증상은 목의 자인 화가 금이 부족한 틈에 보복을 하기 때문에 화가 도리어 금을 극하여 생기게 되는 것이라는 해석<sup>46)</sup>을 참고할 만하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위의 「비예백요방」의 증상들과 크게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비예백요방」에서는 폐병증상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눈과 관련된 증상만 나열하고 노여움이 멎지 않는 증상만 덧붙였다. 간략함을 추구한 듯 하면서도 눈과 관련된 증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교변대론의 내용보다 구체적이다. 다른 4가지 경우에도 한두 증상 정도는 비슷한 증상을 발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증상표현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기타 다른 경우의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표 1, 2, 3 참조). 논자는 이에 대해서 「황제내경」식 운기론과 다른 저자만의 운기이론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는 비록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힐 수 없으나 아마 여기에는 저자가 직접 듣거나 경험한 내용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표 2> 歲運太過之年과 발병증상<sup>47)</sup>

歲運太過	年	발 병 증 상
歲木太過	壬	飢泄, 食減, 體重, 煩冤, 腸鳴, 腹支滿. 忽忽善怒, 眩冒, 巔疾, 脇痛, 吐甚.
歲火太過	戊	瘧, 少氣, 欬喘, 血溢血泄, 注下, 噎燥, 耳聾, 中熱, 肩背熱 胸中痛, 脇支滿, 脇痛, 膺背肩胛間痛, 兩臂內痛, 身熱, 骨痛, 浸淫. 譫妄, 狂越, 欬喘息鳴, 下甚血溢泄不已
歲土太過	甲	腹痛, 清厥, 意不樂, 體重, 煩冤. 肌肉痿, 足痿不收, 行善癢, 脚下痛, 飲發中滿, 食減, 四肢不舉, 腹滿, 漉泄, 腸鳴
歲金太過	庚	兩肋下少腹痛, 目赤痛, 眚瘍, 耳無所聞. 體重, 煩悶, 胸痛引背, 兩脇滿且痛引少腹. 喘欬逆氣, 肩背痛, 尻陰·股·膝·髀·腦·筋·足皆病. 暴痛 脇不可以反側, 欬逆甚而血溢.
歲水太過	丙	身熱, 煩心, 躁悸, 譫妄, 心痛 腹大, 脛腫, 喘欬, 寢汗出, 憎風 腹滿, 腸鳴, 漉泄, 食不化, 渴而妄冒.

46) 김은하·권영규, 위의 책, 163.

47) 「黃帝內經素問」氣交變大論 第六十九.

<표 3> 不及太過之年과 발병증상<sup>48)</sup>

歲運不及	年	발 병 증 상
歲木不及	丁	中清, 肢脇痛, 少腹痛, 腸鳴, 泄泄. 寒熱, 瘡瘍, 癰疹癰疽. 欬而飢.
歲火不及	癸	胸中痛, 脇支滿, 膺背肩胛間及兩臂內痛, 鬱冒朦昧, 心痛暴痞, 胸腹大, 脇下與腰背相引而痛. 屈不能伸, 髀脾如別. 驚漉, 腹滿, 食飲不下, 寒中腸鳴, 泄注腹痛, 暴攣痿痺.
歲土不及	己	飧泄霍亂, 體重腹痛, 筋骨絲復肌肉羸酸, 善怒, 咸病寒中. 胸脇暴痛, 下引少腹, 食少失味.
歲金不及	乙	肩背脊重, 飢噉, 血便, 注下. 陰厥且格, 陽反上行, 頭腦戶痛, 延及顛頂, 發熱, 口瘡, 甚則心痛.
歲水不及	辛	腹滿, 身重, 濡泄, 寒瘍流水, 腰股痛發, 鬲膈股膝不便, 煩冤, 足痿清厥, 脚下痛, 甚則附腫. 寒疾於下, 腹滿浮腫. 面色時變, 筋骨併辟, 肉瞶瘖, 肌肉疹發, 氣并膈中, 痛於心腹.

한편 「비예백요방」에서 운기론을 비중있게 활용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천지수인관과 얼핏 대조되어 보일 수 있다. 운기론은 인체가 자연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질병이 생기니 이에 따라 예방하고 치료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람의 마음이 질병의 근원이고 심지어 자연도 이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는 천지수인관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논자는 이 두가지가 배치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천지수인관은 사람의 마음만이 사람의 건강과 질병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1차적 원인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2차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변화가 바로 이 2차적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세상에 심기가 바르고 오상도 잘 갖춰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사람들은 스스로 질병을 불러들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연의 변화도 완만하여 2차적인 원인도 예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심기가 치우치고 오상이 잘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스스로 질병을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변화도 심해져

48) 「黃帝內經素問」氣交變大論 第六十九.

서 2차적인 영향도 크게 받게 된다. 그래서 운기이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서문에서 먼저 오상이 변하여 손상되면 자연의 변화(오성의 변화)가 생기고 이때에 특정 증상이 잘 생기는데 어떤 해에 잘 생긴다<sup>49)</sup>고 한 내용은 질병이 생기는 과정에서 1차적인 원인은 오상과 같은 심기에 있고 2차적으로는 자연의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 4. 결 론

「비에백요방」은 1230-1240년경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 의서이다. 「의방유취」에 남아있는 유문은 크게 총론편과 처방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론편에는 4편의 논설이 남아있다. 그 중 첫 번째 논설은 제목이 따로 없으나 마지막 부분에 “급한 때에는 눈앞에 물건을 취하여 1~2가지 약물로써 7~8가지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백요(百要)라고 이름하여 아래에 분류한다.”라는 문장으로 미루어 보아 서문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다른 3편의 논설은 병의 원인(病源), 약의 복용법과 30가지의 금기(服藥法并通忌三十), 약을 만드는 법(修合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처방편에는 약 1250여 가지를 상회하는 조문이 남아있다.

이 책은 「향약구급방」과 「삼화자향약방」 등 여말선초의 향약의서들의 모태가 된 것으로 추측되는 중요한 서적이지만 고려의서로 밝혀진 이후에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논자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가운데 이 책의 복원작업을 시작하면서 총론에서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여 그 친인관과 의학관에 대하여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49) 의(義)가 변하여 인(仁)을 상하게 하면 하늘의 태백(太白)이 그 세성(歲星)을 범하는 변동이 생긴다. 이때에 잘 생기는 증상은 눈이 붉어지고 지리고 아프며 흰 예막과 창이 생겨서 흑 가렵고 흑 찌르듯 하며 노여움이 그치지 않는 것이다. 경진·경술·경자, 정축·정미·정묘·정유년에 많이 발생하며 나머지 해에 발생하는 것은 간이 받은 기가 부족한 것이므로 먼저 그 폐를 치료하고 뒤에 간을 보해준다.

1. 서문에서 보이는 “天地隨人而變, 故心氣一偏, 則諸氣皆從.”, “是以人猶先作, 天乃後變.”이라는 두 문장은 이 책의 천인관을 가장 잘 보여주며 논자는 편의상 ‘天地隨人觀’이라고 이름붙였다. 천지수인관은 사람의 마음이 우선 하며 하늘은 이를 따라 후에 변한다고 하여 질병과 자연의 변화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자연의 변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이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는 기존의 의학관과 대비된다.
2. 천지수인관에서 사람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고 국가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내용과 오상과 오성을 오행의 원리에 의거하여 연결시킨 부분은 고려시대에 널리 퍼져있었던 천인감응설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천인감응설에서의 사람은 주로 군주를 뜻하고 하늘을 사람을 별하는 상위 인격체로 설명하는 것에 반해 천지수인관에서의 사람은 군주에 한정되지 않고 하늘도 사람의 마음에 반응하여 변할 뿐 상위존재나 인격체로서의 면은 발견할 수 없다. 오상과 오성을 연결한 부분도 천인감응설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 책에서는 이를 운기 및 질병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한단계 발전된 의학이론을 제시하였다.
3. 이 책에서 처방의 특징은 구하기 쉬운 약재를 사용하여 간이성을 추구하고 단미 위주의 처방을 다용하였다는 것이다. 「향약제생집성방」이나 「향약집성방」의 서문·발문에서는 단미약재의 우수성과 의도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이 책의 원칙과 매우 부합된다. 또 향약의서의 시초로 알려져 있는 향약구급방은 이 책을 전사하다시피 중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이 책은 여말선초 향약의서들의 전신이자 견인차 역할을 한 서적이라 할 수 있다.
4. 이 책에서는 현재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우리 의서 중에서 최초로 운기이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오장병이 다발하는 해와 그 증상, 오장병의 예후, 오미와의 관계 등을 간략히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황제내경」의 운기칠편과 차이가 있어 논자는 이 책의 저자만의 운기이론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는 비록 소상히 밝힐 수 없으나 아마 여기에는 저자가 직접 듣거나 경험한 내용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안상우. “고려의서 備預百要方 의 고증.” 서지학연구 22집(2001. 12). 325-350.
- 신영일. “ 鄉藥救急方 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4.
- 윤창렬·정윤철. “醫學上에 나타난 天人相應.”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한의학논문집 Vol.5, No.2(1997. 2). 113-126.
- 김동민. “동중서 춘추학의 천인감응론에 대한 고찰.” 동양철학연구 Vol.36(2004. 1). 313-348.
- 강연석. “ 鄉藥集成方 의 鄉藥醫學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 이희덕. 고려유교정치사상의 연구. 서울: 일조각, 1984.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국역 고려사 . 부산: 민족문화, 2006.
- 김은하·권영규. 오운육기학 해설. 서울: 법인문화사, 1996.
- 劉溫舒 著. 윤창렬·박상영 엮음. (懸吐註解)素門立式運氣論奧 .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 「醫方類聚 卷3. 卷24. 卷77. 卷249. 卷250. Microfilm.
- 「黃帝內經靈樞 邪客編 第七十一.
- 「黃帝內經素問 氣交變大論 第六十九.
- 「高麗史」列傳 權敬中.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

